

#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맞 올렸다

### 1억 농부 500명·청년농 1천명 육성·스마트팜 확대 공청회 의견 수렴·TF팀 거쳐 8월 최종 사업 계획 발표

영암군이 연 1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는 1억 농부 500명, 청년농업인 1천명 육성을 위한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농정 혁신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는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 1차 산업 중심 농업, 청

년농 부족 및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첫 발표는 안병한 (유)한터 대표가 맡았다. 그는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영암군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암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득중심 식량작물 생산 및 전략 작물 산업화 구축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융복합 농식품 산업 육성 ▲K-웰니스 도시활성화 힐링 농업농촌 구현 등이다.

또한 우승희 군수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우 군수는 "272명의 1억 농부를 2026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300명에서 2000년까지 1천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 전초기지인 스마트팜을 현재보다 100배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약재배와 공선출하를 실시하고, 유통·가동·판매에 2배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2000년까지 농정 분야 탄소배출 40%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친환경 비료지원, 메탄 저감 사료 공급 등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소미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사, 안병한 (유)한터 대표, 이병중 영암축협장, 김원식 서영암농협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청중 즉석 질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암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참구 역할을 했다.

우승희 군수는 "잘 사는 영암이라는



영암군이 최근군청에서 민선8기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를 열고 농정정책을 소개했다. <영암군 제공>

공동의 목표를 향해 민·관·의회가 함께 토론했고 합리적인 결과를 유출하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농정대전환'이라며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TF팀 구성, 협치농정위원회, 품목별 협의회를 거쳐 오는 8월 협치농정 군민회의에서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해남군이 지난 22일 2024년 1분기 청렴 실적 보고회를 열고 새롭게 발굴한 청렴 시책을 공유했다. <해남군 제공>

## 명현관 해남군수 "청렴·신뢰행정 구축 당부"

### 1분기 실적보고회 개최...청렴멘토제 등 발굴 시책 공유

명현관 해남군수가 청렴 해남 실현과 신뢰행정의 확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무 추진 시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 간 청렴 성과를 공유, 발굴된 청렴 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2024년 1분기 청렴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명현관 군수는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청렴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실된 자세로 군민들에

게 청렴의 의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현장 행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굴된 청렴 시책 중 청렴 멘토제, 보조사업 맞춤형 안내 및 탈락자 안내 강화, 작곡 시 부조리 신고 안내 강화, 개인 SNS를 통한 청렴 결의, 칭찬 쿠폰 등 새로운 시도의 다양한 시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해남군은 민선 8기 역점과제인 '청렴 해남' 실현을 위한 전 직원 공감대 확산과 청렴문화 확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

다.

올해 시무식과 함께 첫 번째 군수 지시사항으로 청렴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 부서에서 45개 청렴 시책을 발굴해 연중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시책 추진 상황을 재차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군정의 여러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모든 정책들이 빛을 바래기 마련"이라며 "청렴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농어촌공 나주시, 안전 영농·풍년 기원 통수식 개최

### 봉황면 만봉저수지서...내달 6일 본격 영농수 시작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는 24일 "봉황면 만봉저수지에서 안전 영농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내부 직원, 수리시설 감시원을 비롯한 지역농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만봉저수지는 나주시 봉황면 소재 153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로써 나주호, 백용제와 더불어 가장 큰 저수지 중 하나다.

현재 나주호 저수율 80.5%, 만봉저수지 저수율 99.6%를 비롯해 나주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1.8%로, 올 한해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

로 기대된다.

간수진지사는 "공사의 주요 고객인 농업인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적량의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용

수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는 오는 5월6일부터 나주호 본 통수를 시작으로 16개의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영농급수에 들어간다.

/나주=정정환기자



## 완도 보길면서 여섯째 아이 출생 '눈길'

### 신우철 군수 축하 방문 등 기관·사회단체 후원 물품 전달

완도 보길면에 여섯째 아이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24일 "지난 22일 신우철 군수가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축하 방문에는 신우철 군수와 군 관계자를 비롯해 완도군체육회, 완도군청년연합회, 농협 완도군지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완도 소안수협,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보길면 변영희 등이 함께했다.

보길면 백도리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김찬성·김희정씨 부부는 지난 24일 여섯째 아이인 김강현 군을 품에 안았다.

신우철 군수는 부부의 집을 직접 방문해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기

키움카드'와 출생 축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군은 김 씨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2천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 완도군지부에서는 전기밥솥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생활용품 꾸러미를, 행복복지재단에서는 온누리상품

권과 쌀을 후원했고, 이 밖의 단체에서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완도군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는 500만원, 둘째는 1천만원, 셋째는 1천300만원, 넷째는 1천500만원, 다섯째는 2천만원, 여섯째는 2천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출산 장려금 외에도 돌맞이 축하금,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장난감 도서관 회비 감면 등 다자녀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윤보현기자



## 한빛원전 수명연장, 초안 주민공람 논란

### 영광지역 등 농민단체 "한수원 직원 관여 적절치 않아"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진행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물 공세로 공람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영광군 농민회를 포함한 한빛원전 인근지역 4개 농민단체는 지난 22일 한빛원전 정보 앞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한수원 직원 개입 규탄대회를 열었다.

농민단체는 "최근 고창군 소재의 마을회관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하는 현장에 선물세트를 나눠주며 서명을 종용하는 모습이 발각됐다"며 "수명연장을 염두에 둔 초안 공람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주민들을 접촉하는 등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법령에 근거한 초안 공람에 한수원이 직접 주민에게 열람을 종용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며 "열람부 작성에 공무원이 아닌 한수원 직원이 대리 작성하는 것이 적법한가

등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공람 무효화 투쟁을 선언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문 용어로 어렵다는 말이 많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 것인데 홍보 물품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공람에 대한 서명을 종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람율이 저조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목포어린이도서관 어린이날 행사 운영

### 내달 3일 레이싱게임 경주대회 개최·과자 꾸러미 증정

목포어린이도서관(사진)은 24일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5월3일 MCL(Mokpo Child Library)레이싱게임 경주 대회가 개최된다. 인기 레이싱게임인 '마리오카트8 디럭스'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상장과 부상, 1

~3위에게는 트로피를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가족, 친구 모두 관람 가능하며, 관람자 중 추첨해 상품을 증정하는 '힘내라, 레이서!'도 마련돼 있다.

또한 5월1일부터 3일까지 도서 대출을 하는 어린이에게 과자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Happy Sweet Day'도 운영한다.



MCL 레이싱게임 경주대회 참가 신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어린이도서관(061-287-1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혜선기자

## "새콤 달콤 맛의 향연" 신안 간재미 축제 성료

### 간재미 요리 경연대회·초추침 만들기·난타 공연 등 풍성

신안군 섬간재미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도초 수국정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5회 섬 간재미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간재미 요리 경연대회, 신안의 맛 간재미 초추침 만들기 퍼포먼스, 지역민들이 준비한 난타 공연 등 문화 행사와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도초면 여성단체는 축제 기간에 운영한 행사 부스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신안군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안군은 홍어, 낙지, 강달어, 불블락 등 11종의 섬 수산물 축제를 제철 시기에 맞춰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수산물 축제의 첫발을 내딛은 이번 간재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다음 수산물 축제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신안=양홍기자

